“39억원은 있어야 부자…하지만 현실은 7억원 수준”

“연봉 5천만원 한 푼도 안쓰고 78년 모아야하는 39억원”

성인 10명 중 8명 “39억원 못 모을 것 같다”

우리나라 성인들은 39억원 이상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인이 모을 수 있는 자산은 7억원 수준일 것으로 인식한다고 조사됐다.

9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성인남녀 4111명을 대상으로 ‘부자의 기준’을 조사한 결과, 부자라고 생각하는 총 보유자산 규모는 평균 39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순히 계산하면, 연봉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푼도 안 썼을 때 78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다.

연령대별로는 △30대(39억8000만원) △40대(39억원) △20대(38억7000만원) △50대 이상(33억3000만원)의 순이었다. 특히 20대부터 40대는 기준 금액이 비슷한 반면, 50대 이상은 유일하게 다른 연령대보다 부자라고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5억원 이상 낮았다. 이는 다년간의 사회 경험과 더불어 정년에 접어들며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39억2000만원)이 여성(38억20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많았다. 기혼자(36억4000만원)가 미혼자(39억9000만원)보다 부자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3억5000만원 더 적었다. 결혼·출산 등을 통해 지출이 커지면서 부유함을 판단하는 기준점도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자의 기준(이상)과 현실은 매우 괴리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목표로 한 만큼 자산을 모을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10명 중 8명(76.6%)이 ‘못 모을 것 같다’고 밝혀,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20%는 ‘조금 더 모으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고, 3.4%는 ‘이미 모았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들이 현실적으로 평생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자산은 이보다 훨씬 적은 평균 7억400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부자라고 생각하는 기준보다 무려 31억6000만원이 적은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8억5000만원)이 여성(6억4000만원)보다 2억1000만원 많았으며,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자(7억9000만원)가 미혼자(7억원)보다 9000만원 높았다.

이렇게 재산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 것(복수응답)으로는 ‘예·적금’이 65.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1위였다. 뒤이어 △복권·로또(29.1%) △펀드·주식’(20.6%) △연봉 인상을 위한 이직 준비(20.2%) △부동산투자(15.4%) △투잡·부업(10.6%) △창업준비(10%)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다(8.8%)

한편, 자산 증식에 방해가 되는 지출(복수응답)로는 절반 이상이 ‘식비 등 생활비’(55.5%)를 꼽았다.

뉴스1

“냉동밥 이렇게 많았나…1000억원 시장 놓고 혈투”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CJ제일제당 ‘비비고 냉동밥’, 풀무원 ‘황금밥알 200℃ 볶음밥’, 롯데푸드 ‘직화소고기덮밥’, 대상 ‘나물밥 2종’

1000억원 규모로 성장한 냉동밥 시장을 놓고 CJ제일제당과 풀무원, 오뚜기 등 식품업체들의 경쟁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국내 냉동밥 시장은 ‘압도적 1위’가 없는 ‘춘추전국시대’ 모양새다. 히트작 하나에 따라 업계 순위가 뒤바뀌는 양상이어서 다양한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냉동밥 시장 규모는 736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연말까지 1000억원대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냉동밥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왔다. 2012년 88억원 수준에서 2017년 825억원으로 10배가량 커졌고 지난해에는 915억원으로 900억원대를 첫 돌파했다.

CJ제일제당의 ‘햇반’과 같은 상온즉석밥에 비해 냉동밥은 유통기한이 길고 보관이 편리해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볶음밥 위주였던 냉동밥 제품은 비빔밥, 나물밥, 덮밥 등으로 그 종류 역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냉동밥 시장은 CJ제일제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시장을 장악한 제품은 없이 없다보니 식품업체들은 소비자 입맛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시판 제품만 400여 종에 이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무작정 경쟁 업체를 따라한 제품을 내놓기보다는 각자의 생산 노하우를 적극 반영, 차별화된 제품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별화된 재료와 만드는 방식으로 날로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

1인당 노동소득 41세에 3209만원 ‘정점’

통계청, 59세부터 적자인생

생애주기를 볼 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노동소득은 41세에 3209만원으로 정점을 찍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없는 유년기와 청년기를 거쳐 27세부터 흑자구조를 나타낸 뒤 은퇴 시기인 59세 이후에는 적자 인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년기에는 교육비 지출이 많으며 고령층에서는 의료비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9일 발간한 ‘2016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국민 전연령의 노동소득(임금+자영업소득)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84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생산가능연령인 15~64세 노동연령층의 노동소득이 820조3750억원으로 전체 노동소득의 97.4%를 차지했다. 생산가능연령 15세 미만인 0~14세는 소득이 없었으며, 65세 이상 노령층의 노동소득은 21조726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각 연령별 1인당 노동소득은 생애주기 가운데 41세에 3209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41세 1인당 임금은 3081만원이며, 자영업소득은 128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구조를 나타낸 뒤 41세에 정점을 찍고 59세부터 소비가 노동소득을 앞지르는 적자인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0~26세까지는 적자가 발생했으며 16세에 2867만원으로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이어 27세부터 58세까지 흑자를 기록한 뒤 59세부터 다시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세에는 흑자가 1435만원으로 최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연령으로 보면 2016년 전 연령의 노동소득에서 소비를 뺀 생애주기적자는 110조3000억원으로 전년 112조620억원보다 1조7620억원(-1.6%) 감소했다.

소비가 전년 대비 3.8% 증가한 952조400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노동 소득이 같은 기간 4.5% 증가한 842조1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규모가 소폭 줄었다.

노동소득이 없는 0~14세 유년층은 130조6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은퇴시기가 지난 65세 이상 노년층도 9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생산가능연령 15세 미만인 유년층은 노동소득이 0원인 반면 공공소비와 민간소비는 각각 62조원, 6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공공소비의 경우 공공교육소비가 37조6000억원을 기록했으며, 공공보건소비는 5조원으로 나타났다.

노령층은 노동소득이 21조7260억원을 기록했으나 공공소비와 민간소비가 각각 44조3780억원, 69조7480억원으로 총 소비가 114조1260억원에 달해 92조4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노령층의 경우 공공보건소비가 33조5000억원으로 전체 공공보건소비의 39.6%를 차지했다.

반면 15~64세 노동연령층은 노동소득 820조4000억원에서 소비 707조7000억원을 빼 112조7000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노동연령층의 노동소득은 2015년 784조1800억원에서 820조3750억원으로 36조1950억원(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